

## 초기 청소년기 자기통제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부모애착, 교사애착,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조 화 진      최 바 을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9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부모와의 애착, 교사와의 애착 및 자기존중감이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동일 아동을 4년간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때, 10세 전후에 자기통제 발달이 완료되어 이후로 유지된다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에 근거하여 2차 성장모형(quadratic growth model)을 가정하고,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통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다가 만 11세(6학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2차년도(10세)의 자기통제 수준은 낮은 반면, 부모애착과 교사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 감소율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 감소율은 줄어들었고, 자기통제가 최저점에 이르러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였고,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자기통제, 부모애착, 교사애착, 자기존중감, 성장모형

2000년대 들어 200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청소년 범죄율은 2007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청소년기 비행 또는 범죄는 미래의 법 위반자 또는 비행 행동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성향을 예측한다는 점에서(MacKenzie, 2002), 청소년기 비행 및 범죄를 예측

하는 변인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비행 또는 범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기통제(self-control)가 주목을 받아 왔다(Letzing, Block, & Funder, 2005). 자기통제는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과 사고를 변화시키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으로

\* 교신저자: 서영석, E-mail: seox0004@yonsei.ac.kr

정의할 수 있다(Muraven, & Baumeister, 2000).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비행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이경님, 2002; 정소희, 2007; Krueger, Caspi, Moffitt, Silva, & McGee, 1996; Longshore, Chang, & Messina, 2005; Pratt & Cullen, 2000). 반면, 성공적인 자기통제는 법이나 규칙 준수뿐 아니라 학업 수행, 관계의 시작과 유지, 스트레스 대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rdijn, Hindriks, Koomen, Dijksterhuis, & Van Knippenberg, 2004; Gottfredson & Hirschi, 1990; 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Shoda, Mischel, & Peake, 1990;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한편, 사람들은 과잉통제(overcontrol)에서 과소통제(undercontrol)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의 자기통제를 지닐 수 있다(Block & Block, 1980). 예를 들어, 자기통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과잉통제 집단은 행동과 감정표현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소심하고 자기존중감이 낮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Block & Block, 1980; Hart, Hoffman, Edelstein, & Keller, 1997). 반면, 자기통제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은 감정과 충동을 즉흥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분출하는 경향이 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뿐 아니라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Block, 2002). 개인마다 자기통제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통제의 형성과 발달 과정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통제의 형성과 발달 과정,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Burt, Simons, & Simons, 2006).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Unnever, Cullen, & Pratt,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의 발달을 추적 조사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통제의 발달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자기통제의 안정성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주창한 일반범죄이론(general theory of crime)은 범죄와 자기통제 간 관련성을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낮은 자기통제 수준과 범죄의 기회 및 모방 행동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자기통제와 관련 변수 간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는데(Piquero & Bouffard, 2007), 특히 많은 연구들이 자기통제의 발달과 안정성에 대해 주목해 왔다(Turner & Piquero, 2002). Gottfredson과 Hirschi에 따르면, 자기통제는 초기 아동기에 진행되는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 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8세에서 10세 사이에 관찰되는 개인 간 차이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이 시기에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높은 자기통제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 시기에 낮은 통제 수준을 보이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자기통제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한다. 이는 자기통제가 발달하고 안정을 이루기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한 번 형성된 자기통제 수준이 평생 동안 유지된다면 한 개인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이 시기에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7세

에서 1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한 Hay와 Forrest(2006)는 80% 이상의 아동들이 7세부터 자기통제의 안정성이 나타나고 16%만이 10세 이후에 안정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자기통제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어 이후에도 유지되는 안정적인 행동특성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었다(Burt, Simons, & Simons, 2006; Winfree, Taylor, He, & Esbensen, 2006). Burt 등(2006)은 75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10세에서 12세를 첫 번째 시점으로 하고 12세에서 14세를 두 번째 시점으로 하여 자기통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2년 후에도 원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 정도의 자기통제 수준을 지녔던 청소년 중 1/3만이 같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종단 연구를 수행한 Winfree 등(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의 시점 간 상관을 확인한 선행연구들(Rafaelli, Crockett, & Shen, 2005; Turner & Piquero, 2002)에서는 상관의 크기가 중간 정도(.33-.68)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이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 발달을 확인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연구결과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박찬화(1987)는 2세와 4세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경남(2001)과 박은

숙, 조오숙, 김영희(2009)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자기통제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자기통제의 발달 및 안정성을 연구한 경험적 논문들에서 서로 다른 결과들이 도출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기통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연구마다 달라서일 수 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한 시점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차이, 즉 시대별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수행된 자기통제 관련 연구들은 동년배 효과(cohort effect)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자료를 분석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기통제 발달에 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자기통제의 안정성을 검증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고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자기통제의 안정성에 대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은 여전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 양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자기통제의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환경 변인(예, 부모 성격, 가족구조, 어머니와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부모의 훈육방식, 부모와의 애착, 교사와의 애착)과 개인내적 변인(예, 통제신념, 자아개념, 자기존중감)을 설정하여 자기통제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박은숙 등, 2009; 신지현, 2008; 이경남, 2001; 이미라, 1999; 정지영, 도현심, 최미경, 2005; 한주리, 허경호, 2005; Burt et al., 2006; Eisenberg, Zhou, Spinrad, Valiente, Fabes, & Liew, 2005; Trumpeter, Watson, & O'Leary, 2006; Vazsonyi & Huang,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중 부

모애착과 교사애착,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예측변인으로 채택하여 자기통제 수준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들 변인과 자기통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모애착과 자기통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이론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10세 이전 아동의 자기통제 형성 및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 내에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과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부모의 감독 및 규율 등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 부재할 경우, 아동은 만족을 지연시키거나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의 욕구나 반응에도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과의 관계가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발달 초기 아동과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애착이론(Bowlby, 1969) 또한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에 대해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애착(attachment)은 양육자와 아동 간 강한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데, 발달 초기 아동은 주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 때 형성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이후 맺게 되는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와 애착 관련 행동전략들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모와 어떤 애착패턴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전략들을 사용해서 애착 관련 욕구들을 표출하고 충족시키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은 아동의 자기조절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김태련 등, 2004).

실제로 수행된 경험적인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온정적이

고 일관된 훈육 방식과 긍정적인 표현방식은 아동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박은숙 등, 2009; 이경남, 2001; 이미라, 1999; Eisenberg et al., 2005; Silverman & Ragusa, 1990; Vazsonyi & Huang, 2010), 거부적이거나 신체적 처벌 등 과도한 통제를 가하는 훈육 방식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남, 2001; 이미라, 1999). 특히, Eisenberg 등(2005)은 9세, 11세, 13세를 대상으로 부모의 표현양식이 2년 후 아동의 자기통제를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부모의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표현방식은 2년 후 아동의 자기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낮은 수준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Eisenberg 등은 부모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 방식이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 또는 표현방식이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통제를 증가시킨다는 해석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방식은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 & Tomich, 2000), 안정애착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 & Davies, 1996). 또한 Vazsonyi와 Huang(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통제수준과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설정하고,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율이 클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과 안정성에 관한

가장 최근의 종단연구인 Vazsonyi와 Huang(2010)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자기통제 변량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의 발달 및 안정성을 설명할 때 부모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교사에착과 자기통제

학교에서의 사회화 경험 또한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itchell & Mackenzie, 2006; Turner, Piquero, & Pratt, 2005).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취학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학교에서의 사회화 경험을 통해 자기통제를 발달시키게 된다. 이 때 교사는 아동을 사회화시키고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15, 16세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평생에 걸쳐 가정과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Hirschi & Gottfredson, 2001). 실제 연구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태도를 관찰하고 잘못된 행동을 파악하여 훈육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학생의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Turner et al., 2005), 교사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rt et al., 2006).

한편, 국내에서는 교사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경님(2004)의 연구를 제외하면, 교사와의 애착과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 및 발달 간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 및 발달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자기존중감과 자기통제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믿음인 자기존중감이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3;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자기통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맞게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과 사고를 변화시키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하거나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존중감이 높거나 낮을 경우 스스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과제 집중력이나 인내가 오히려 자기통제 실패를 야기하고, 결국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McFarlin, Baumeister, & Blascovich, 1984), 비생산적인 일이나 불합리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통제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경험적인 연구 결과,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실패를 회피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여 자기통제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r, Brook, Niiya, & Villacorta, 2006).

반면, 많은 연구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통제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신지현, 2008; 한주리, 허경호, 2005; Trumpeter, Watson, & O'Leary,

2006). 즉,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기통제와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서로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방향을 명시하지 않은 채 두 변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발달에 있어서 주요 시점인 9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자기통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 자기존중감이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10세 이전에 자기통제가 형성되어 유지된다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이론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자기통제 관련 연구들은 자기통제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횡단 자료에 근거하여 변인 중심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서 자기통제이론의 적합성 여부를 정확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종단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 형성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내적 변인(자기존중감)과 환경 변인(부모와의 애착, 교사와의 애착)이 자기통제 수준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발달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발달 및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

기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통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다가 안정을 이룰 것이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 교사와의 애착, 자기존중감은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다. 셋째,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 자기존중감은 아동의 자기통제 변화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다.

### 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 청소년을 4년간(초4 - 중1)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층화다단계집락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선택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활동 등에 관한 종단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네 번의 조사 시기 중 단 한 차례만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시점에 따른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차년도에 93년생(4명, 0.1%)과 95년생(400명, 14.4%)을 제외하고 94년생(85.5%)만을 자료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1차년도 2381명(남학생 1294명, 여학생 1087명), 2차년도 2312명(남학생 1261명, 여학생 1051명), 3차년도 2377명(남학생 1291명, 여학생 1086), 4차년도 2139명(남학생 1156명, 여학생 983명)이었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 자기 통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Grasmick, Title과 Bursik(1993)이 개념화한 자기통제의 6개 요소에 기초를 둔 것이다. 6개 요소는 충동성(지금-여기 지향), 위험 추구(범죄를 위험하고 스틸 넘치고 신나는 것으로 지각), 화 기질(순간적인 짜증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성향), 단순과제 선호(복잡한 일을 피하고, 이미 시작한 과제를 마치려는 열정과 인내가 부족함), 육체적 활동(정신적인 활동에 비해 육체적인 활동을 선호), 자기중심성(타인의 욕구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함) 등으로 구성된다(Grasmick et al., 1993). 패널조사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충동성),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위험 추구),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화 기질),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단순과제 선호),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육체적 활동 선호),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자기중심성).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평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시점에 따라 .64-.74로 나타났다.

### 부모와의 애착

패널조사에 포함된 여섯 문항을 사용해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들을 대표적인 애착척도와 비교한 결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중 신뢰를 측정하는 문항과 매우 유사하였으며,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는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과 유사하였다. 또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는 PIML(People In My Life) 척도(Ridenour, Greenberg, & Cook, 2006) 중 사회적 지지에 포함된 문항들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시기별 내적일치도는 .76-.88로 나타났다.

### 교사와의 애착

총 3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교사와의 애착을 측정하였는데, 5점 리커트 형식(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기존의 애착 관련 척도와 비교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IPPA(Armsden & Greenberg, 1987)의 부모애착 중 의사소통에 포함된 문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또한 “선생님은 나에게 사

량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와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PIML(Ridenour et al., 2006) 교사에착 하위척도에 포함된 문항들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시기별 내적일치도는 .64-.72로 나타났다.

### 자기존중감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6개의 문항으로 자기존중감을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본 연구자들이 6개 문항을 Rogenberg(1965)의 자기존중감척도와 비교한 결과, 6개 문항 모두 내용면에서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6개 문항 중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3개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시점에 따라 .74-.77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를 확인하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층선형모형(HLM)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통제 점수는 동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년간에 걸쳐 수집되었는데, 여러 시점에서 측정한 개인특성은 그 개인에게 내재되는(nested) 위

계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다층선형모형(HLM)을 적용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특정 시기 이후에 자기통제 수준이 안정을 이룬다는 자기통제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 그리고 측정 간격이 짧고 관찰 시점이 4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차 성장모형(quadratic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즉, 1단계 모델에서는 시간에 따른 각 개인의 발달을 성장 곡선으로 표현하였고, 2단계에서는 개인의 특성(부모애착, 교사에착, 자기존중감)이 개인의 성장 모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모델을 설정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형 설정 시 중심화를 적용하였는데(Raudenbush & Bryk, 2002), 두 번째 시점( $a_{ti}-2$ ), 즉 10세로 중심화 하였다. 이는 10세가 자기통제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10세의 성장률이 곧 전체 측정 기간의 평균 성장률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두 단계에 걸쳐 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1단계 기초 모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1수준

$$Y_{ti} = \pi_{0i} + \pi_{1i}(a_{ti} - 2) + \pi_{2i}(a_{ti} - 2)^2 + \varepsilon_{ti}$$

##### 2수준

$$\pi_{0i} = \gamma_{00} + \zeta_{0i}$$

$$\pi_{1i} = \gamma_{10} + \zeta_{1i}$$

$$\pi_{2i} = \gamma_{20} + \zeta_{2i}$$

1단계 중 1수준 모형은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 변화를 검증하는데, 시간별 개인의 자기통제 점수

( $Y_{ti}$ )는 절편과 기울기 및 가속도로 설명된다. 이 때, 절편( $\pi_{0i}$ )은 두 번째 시점에서 개인의 자기통제 점수이고, 기울기( $\pi_{1i}$ )는 자기통제 변화율,  $\pi_{2i}$ 는 자기통제 가속 변화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오차( $\varepsilon_{ti}$ )는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개인 내 변화를 의미한다. 1수준 모형이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를 검증한다면, 2수준 모형은 개인 간 차이를 검증한다. 즉, 모집단에서의 평균적인 궤적(trajjectory)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 수준, 변화율 및 가속 변화율이 개인마다 다른지를 확인한다. 이 때, 2수준 모형 첫 번째 식은 절편( $\pi_{0i}$ )이 고정효과( $\gamma_{00}$  = 두 번째 시점에서의 자기통제 평균값)와 무선효과( $\zeta_{0i}$  = 두 번째 시점에서 사람들마다 자기통제가 다른 정도)로 표현된다. 두 번째 식은 기울기( $\pi_{1i}$ )가 고정효과( $\gamma_{10}$  = 자기통제 평균 변화율)와 무선효과( $\zeta_{1i}$  = 사람들마다 평균 변화율이 다른 정도)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은 가속변화율( $\pi_{2i}$ )이 고정효과( $\gamma_{20}$  = 자기통제 평균 가속 변화율)와 무선효과( $\zeta_{2i}$  = 사람들마다 평균 가속 변화율이 다른 정도)로 표현된다.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으로 두 번째 시점의 자기존중감, 부모애착, 교사애착을 투입하여 자기통제 평균값과 변화율 및 가속변화율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2단계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2단계

1수준

$$Y_{ti} = \pi_{0i} + \pi_{1i}(a_{ti} - 2) + \pi_{2i}(a_{ti} - 2)^2 + \varepsilon_{ti}$$

2수준

$$\begin{aligned} \pi_{0i} &= \gamma_{00} + \gamma_{01}(\text{자기존중감})_{1i} + \gamma_{02}(\text{부모애착})_{2i} + \gamma_{03}(\text{교사애착})_{3i} + \zeta_{0i} \\ \pi_{1i} &= \gamma_{10} + \gamma_{11}(\text{자기존중감})_{1i} + \gamma_{12}(\text{부모애착})_{2i} + \gamma_{13}(\text{교사애착})_{3i} + \zeta_{1i} \\ \pi_{2i} &= \gamma_{20} + \gamma_{21}(\text{자기존중감})_{1i} + \gamma_{22}(\text{부모애착})_{2i} + \gamma_{23}(\text{교사애착})_{3i} + \zeta_{2i} \end{aligned}$$

$$\begin{aligned} &\gamma_{12}(\text{부모애착})_{2i} + \gamma_{13}(\text{교사애착})_{3i} + \zeta_{1i} \\ \pi_{2i} &= \gamma_{20} + \gamma_{21}(\text{자기존중감})_{1i} + \gamma_{22}(\text{부모애착})_{2i} + \gamma_{23}(\text{교사애착})_{3i} + \zeta_{2i} \end{aligned}$$

결 과

기술통계 분석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통제(3.78-3.55), 부모애착(3.73-3.55) 및 교사애착(2.74-2.65)은 감소한 반면, 자기존중감(2.67-2.8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별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자기통제는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01--.17), 부모애착(.12-.27) 및 교사애착(.09-.2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층모형 검증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 변화 검증

시간에 따라 자기통제가 개인 내 수준(within-individual)에서 유의미하게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예측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검증하였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표 2), 개인 내 자기통제는 시간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varepsilon_{ti} = .250, p < .001$ ), 두 번째 시점(10세)에서의 자기통제 평균값은 3.64( $p < .001$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점(10세)에서의 자기통제의 평균 변화율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gamma_{10} = -.107$ ), 평균 변화가속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20} = .031$ ). 이는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만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어

표 1. 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M	SD
1.통제T1	-	.44	.40	.30	-.11	-.06	-.05	-.01	.24	.21	.17	.14	.21	.16	.15	.11	3.78	0.68
2.통제T2		-	.48	.38	-.07	-.12	-.07	-.05	.15	.25	.18	.12	.17	.18	.14	.11	3.64	0.70
3.통제T3			-	.48	-.06	-.05	-.16	-.10	.16	.21	.27	.19	.16	.16	.17	.15	3.57	0.71
4.통제T4				-	-.02	-.10	-.12	-.17	.12	.13	.15	.23	.09	.12	.12	.18	3.55	0.74
5.자존T1					-	.23	.15	.09	.08	.01	-.03	-.01	.10	.02	.00	.02	2.67	0.52
6.자존T2						-	.22	.18	.06	.07	.01	.02	-.03	.01	.02	-.01	2.71	0.53
7.자존T3							-	.23	.05	.03	.03	-.02	.00	-.00	-.01	-.00	2.75	0.54
8.자존T4								-	.00	.03	-.02	.02	.04	.01	.02	.03	2.80	0.51
9.부착T1									-	.47	.39	.33	.28	.18	.12	.09	3.73	0.73
10.부착T2										-	.48	.36	.18	.29	.16	.12	3.69	0.76
11.부착T3											-	.46	.18	.17	.24	.13	3.66	0.77
12.부착T4												-	.12	.16	.17	.25	3.55	0.79
13.교착T1													-	.32	.20	.14	2.74	0.90
14.교착T2														-	.27	.20	2.71	0.91
15.교착T3															-	.28	2.67	0.86
16.교착T4																-	2.65	0.88

N = 2381. 상관의 절대값이 .05 이상일 경우  $p < .05$  에서 유의함. 통제 = 자기통제; 자존 = 자기존중감; 부착 = 부모와의 애착; 교착 = 교사와의 애착. T1, T2, T3, T4는 각각 측정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시기를 의미함.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비선형 모형에서는 특정 시점의 변화율을 산출할 수 있는데, 변화율을 0으로 지정하면 정점을 이루는 시기를 추정할 수가 있다. T시점에서의 변화율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text{시점에서의 변화율} = \pi_{1i} + 2\pi_{2i}(a_{ti} - L)$$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시점으로 중심화 하였으므로  $\pi_{1i}$ 는  $L = 2$ 인 시점에서의 자기통제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고,  $\pi_{2i}$ 는  $L = 2$ 인 시점에서의 자기통제 평균 가속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 공식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변화율이 0인 시점( $a_{ti}$ )은 3.73으로 나타났다  $[-.107 + 2(.031)(a_{ti} - 2) = 0]$ . 이는 3차년도와 4차년도의 3/4 시점인 초등학교 6학년 9월에 자기통제 수준이 정점을 이루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자기통제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다가 6학년 후반기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후 안정을 유지함을 의미한다(그림 1).

한편, 자기통제의 총 분산 중 개인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은  $.50(0.250 + 0.250 / 0.250 = .5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의 총 분산 중 50%는 개인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지만, 나머지 50%는 시간에 의해 발생됨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에 따른 개인의 자기통제의 변화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개인차와 관련된 무선효과들( $\zeta_{0i}$ ,  $\zeta_{1i}$ ,  $\zeta_{2i}$ )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통제의 개인 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i번째 학생의 자기통제 점수, 변화율, 가속 변화율( $\pi_{0i}$ ,  $\pi_{1i}$ ,  $\pi_{2i}$ )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표 2. 기초모형 분석 결과

효과	변인	계수	표준오차	t-ratio
고정효과	T2의 자기통제 절편 평균( $\gamma_{00}$ )	3.640***	0.013	285.939
	자기통제 평균 변화율( $\gamma_{10}$ )	-0.107***	0.008	-14.045
	자기통제 평균 가속변화율( $\gamma_{20}$ )	0.031***	0.005	5.713
		분산	df	$\chi^2$
무선효과	T2의 자기통제 절편 개인차( $\zeta_{0i}$ )	0.241***	2296	6148.747
	자기통제 변화율 개인차( $\zeta_{1i}$ )	0.022***	2296	2721.821
	자기통제 가속변화율 개인차( $\zeta_{2i}$ )	0.005**	2296	2460.538
	잔차( $\varepsilon_{ti}$ )	0.250		

\*\*\*  $p < .001$ .

$\pi_{0i}$ 의 신뢰도는 .620으로 높은 반면  $\pi_{1i}$ 와  $\pi_{2i}$ 의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16, .07), 이는 개인 별로 성장곡선을 추정하기보다는 집단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pi_{1i}$ 와  $\pi_{2i}$ 의 상관은 -.21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자기통제 변화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모형 검증 결과 두 번째 시점(10세)에서의 절편과 변화율, 가속변화율의 무선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번째 시점에서의 자기존중감, 부모애착 및 교사 애착 변인을 투입하여 절편, 변화율, 가속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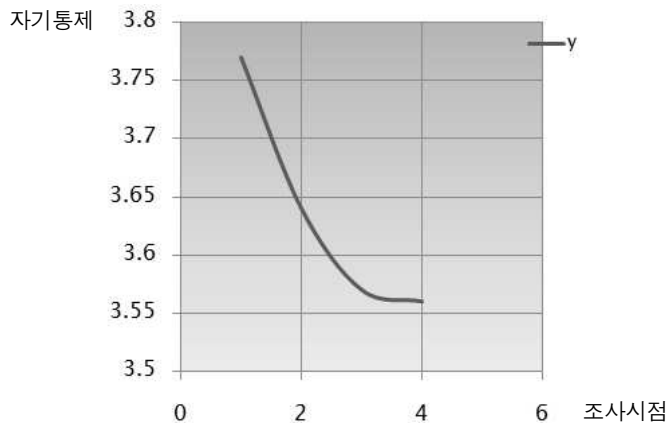


그림 1.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의 변화

화율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두 번째 시점(10세)에서의 자기통제 평균 값에 대한 자기존중감,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 및 교사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시점에서의 자기통제 변화율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부모애착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애

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통제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 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고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자기통제 감소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 가속변화율에 대해서는 부모애착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이 2차함수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자기통제의 변화 양상을 부모애착이 억제함을 의미한다.

표 3. 자기통제 변화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효과	변인	계수	표준오차	t-ratio
<b>고정효과</b>				
T2에서의 자기통제 절편	절편( $\gamma_{00}$ )	3.640***	0.012	296.946
	자기존중감( $\gamma_{01}$ )	-0.135***	0.025	-5.403
	부모애착( $\gamma_{02}$ )	0.131***	0.018	7.357
	교사애착( $\gamma_{03}$ )	0.115***	0.015	7.924
변화율	절편( $\gamma_{10}$ )	-0.107***	0.008	-14.102
	자기존중감( $\gamma_{11}$ )	0.044**	0.017	2.656
	부모애착( $\gamma_{12}$ )	-0.044***	0.012	-3.746
	교사애착( $\gamma_{13}$ )	-0.010	0.009	-1.103
가속변화율	절편( $\gamma_{20}$ )	0.031***	0.005	5.698
	자기존중감( $\gamma_{21}$ )	-0.005	0.011	-0.406
	부모애착( $\gamma_{22}$ )	0.018*	0.008	2.145
	교사애착( $\gamma_{23}$ )	-0.011	0.007	-1.575
<b>무선효과</b>		분산	df	$\chi^2$
T2에서의 자기통제 절편 개인차	$\zeta_{0i}$	0.213***	2293	5700.789
자기통제 변화율 개인차	$\zeta_{1i}$	0.020***	2293	2691.595
자기통제 가속변화율 개인차	$\zeta_{2i}$	0.005**	2293	2452.720
잔차	$\varepsilon_{ti}$	0.250		

\*  $p < .05$ , \*\*\*  $p < .001$ .

한편, 자기존중감, 부모애착, 교사애착 변인은 두 번째 시점(10세)에서의 자기통제 평균값 분산의 12%(.241 - .213 / .241 = .116), 자기통제 변화율 분산의 9%(.022 - .020 / .022 = .09), 그리고 자기통제 가속 변화율 분산의 약 3%(.00491 - .00475 / .00491 = .03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9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부모애착, 교사애착 및 자기존중감이 자기통제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선형모형(HLM)을 적용하여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만 11세(초6) 후반에 최하점에 이르러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통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다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기통제가 10세까지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발달을 멈추고 안정된다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이론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자기통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들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아동은 갑자기 증가한 학업적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학업과 인지적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다른 심리적 활동에 소비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자기통제를 강도

(strength)에 비유한 자기통제 강도 모델(self-regulatory strength model) (Schmeichel & Baumeister, 2004)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 모델에서는 자기통제를 근육의 힘으로 비유한다. 근육의 힘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듯 자기통제도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 활동에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드는 것처럼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가 특정 활동에 집중되다보면 자기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학습 관련 인지적 활동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기통제에 사용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자기통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영향력 감소가 아동의 자기통제 감소의 원인일 수 있다. Hay와 Forrest(2006)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동의 자기통제가 부분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부모의 영향력 감소가 자기통제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로서, 이 때 아동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대신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최정훈 등, 1993). 즉, 또래와 어울리고 그들의 행동기준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점차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은 부모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여가를 즐기기도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비해 부모의 사회화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아동의 자기통제력 감소를 더디게 하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아동의 자기통제 감소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도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자기존중감,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 모두 자기통제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번째 시점(10세)에서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반면, 자기존중감과 부모애착만이 자기통제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통제의 가속변화율에 대해서는 부모애착만이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존중감이 높고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자기통제 감소율이 큰 반면,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이 특정 시점에서 최하점을 이루고 유지하게 하는 데 부모애착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 양상에 대한 각 예측변인의 영향을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특정 시점에서의 자기통제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 감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존중감과 자기통제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예, 신지현, 2008; 한주리, 허경호, 2005; Trumpeter, Watson, & O'Leary, 2006)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지닌 과제 집중력이나 인내가 오히려 비생산적인 일이나 불합리한 방법을 고수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통제 실패로 이어진다는 Baumeister 등(1994)의 주장과 부합된다. 또한 자기통제가 폭력 및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스스로를 호의적으

로 인식할수록 폭력성이 강하고(Baumeister, Smart, & Boden, 1996), 폭력적인 남자들이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믿음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선행연구(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자기존중감의 안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Kernis, Grannemann과 Barclay(1989)의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은 높지만 외부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 자기존중감 수준이 많이 변하는 사람들의 경우 적대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으면서 불안정할 경우 자기통제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특정 시점에서의 자기통제 수준이 낮고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 감소를 촉진시킨 이유가,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의 시점 간 상관은 모두 .23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선행 이론 및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지각된 능력과 지각된 수용을 통해 8세 경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Harter, 1983; Harter, 1989). 그러나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민감해진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시간적 가변성이 커지게 되는데, 한 순간 자신감에 차 있다가도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등 자기존중감이 불안정성을 띠게 된다(Harter, 1989).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특정 시점

의 자기통제 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 이론과 부합될 뿐 아니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표현 방식,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통제 간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예, 이경남, 2004; Contreras et al., 2000; Cummings & Davies, 1996; Eisenberg et al., 2005; Vazsonyi & Huang, 2010)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시간에 따른 아동의 자기통제 감소를 완화시키고 결국 일정 수준에서 자기통제가 안정되고 유지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의 변화 및 유지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자기통제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자기통제력 모델을 고려했을 때, 중 1 이후 시기에도 부모애착이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와의 애착은 특정 시점(10세)에서의 자기통제 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이경남, 2004; Burts et al., 2006)와 일치하고, 품행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Baker, Grant, & Morlock, 2008)에서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고 학업수행이 향상된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교사애착은 아동의 자기통제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자기통제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urt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시간에 따른 교사의 영향력 감소가 그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학년이 올

라갈수록 교사와 학생 간에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김태련 등, 2004). 본 연구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사와의 애착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 = 2.74 - 2.65$ ), 결국 본 연구에서처럼 아동의 자기통제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이 시기 아동의 자기통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또래와의 관계는 인간관계 기술 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 성격, 정서, 인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태련 등, 2004). 즉, 아동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또래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중요한 강화자(reinforcer)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적 비교 기준이 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 측정도구로 활용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자기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t et al., 2006; Longshore, Chang, & Messina, 2005).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시기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 양상에 미치는 또래애착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9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기통제가 매우 어린 시기(4.5세 경)에 결정되고 이후 유지된다는 최근 연구(Vazsonyi & Huang, 2010)를 고려했을 때, 연구대상을 보다 낮은 연령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아동기 초기까지 자기통제가 발달,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해 자기통제에 필요

한 자원이 부족하여 결국 자기통제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해석과 자기통제 강도 모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을 중 1 이상의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자기통제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근육을 사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힘이 회복되는 것처럼 자기통제 또한 다시 일정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자기통제 강도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 분산은 자기존중감,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으로 설명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형제자매, 또래, 미디어, 지역사회(Steinberg, Dahl, Keating, Kupfer, Masten, & Pine, 2006), 생물학적 기질(Blair, 2004), 기질 및 학습(Fishbein, 2001)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자기통제 수준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이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포함된 문항들을 사용해서 이론적 개념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데, 문항 수나 문항구성 면에서 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애착은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자기통제의 경우 6개 요인을 각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타당화 과정을 거친 측정도구들을 사용해서 자기통제 수준 및 변화 양상,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태련, 조혜자, 이선자, 방희정, 조숙자, 조성원, 김현정, 홍주연, 이계원, 설인자, 손원숙, 홍순정, 박영신, 손영숙, 김명소, 성은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은숙, 조오숙, 김영희 (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청소년의 성, 연령, 자아개념이 자아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213-241.
- 박찬화 (1987). 모자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동의 자기조정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8(1), 1-4.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 아동청소년백서.
- 신지현 (2008). 저소득 가정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과 환경 변인의 중재효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경님 (2001). 아동의 자아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97-110.
- 이경님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님 (2004). 아동의 개인 및 가족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적 환경변인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33-845.
- 이미라 (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지영, 도현심, 최미경 (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305-319.
- 최정훈, 이훈구, 한중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 (1993). 심리학: 인간 행동의 이해. 서울: 법문사.
- 한주리, 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202-22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ker, J., Grant, S., & Morlock, L. (2008).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s a developmental context for children with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3(1), 3-15.
- Baumeister, R. F., Bushman, B., & Campbell,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26-29.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E., & Tice, D. M. (1993). When ego threats lead to self-regulation failure: Negative consequences of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1), 141-156.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E.,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676-690.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lair, R. J. R. (2004). The roles of orbital frontal cortex in the modulation of antisocial behavior. *Brain and Cognition*, 55, 198-208.
- Block, J. (2002). *Personality as an affect-processing system*. Mahwah, NJ: Erlbaum.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urt, C. H., Simons, R. L., & Simons, L. G. (2006). A longitudinal test of the effects of parenting and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Negative evidence for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44, 353-396.
- Contreras, J.,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111-124.
- Crocker, J., Brook, A. T., Niiya, Y., &

- Villacorta, M. (2006). The pursuit of self-esteem: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749-1771.
- Cummings, E. M., & Davies, P. (1996). Emotional security as a regulatory process in norm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123-139.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 1055-1071.
- Fishbein, D. (2001). *Biobehavioral perspectives in criminology*. Belmont, CA: Wadsworth.
- Gordijn, E. H., Hindriks, I., Koomen, W.,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 (2004). Consequences of stereotype suppression and internal suppression motivation: A self-regulation approa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212-224.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 Bursik, J. R.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rt, D., Hoffman, B.,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95-205.
- Harter, S. (1983). The development of the self-system. In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arter, S. (1989). Cause,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y, C., & Forrest, W. (2006).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Examining self-control theory's stability thesis. *Criminology, 44*, 739-773.
- Hirschi, T., & Gottfredson, M. G. (2001). Self-control theory. In R. Paternoster & Bachman (Eds.), *Explaining criminals and crime* (pp. 81-96). Los Angeles: Roxbury Press.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13-1323.
- Krueger, R. F., Caspi, A., Moffitt, T. E., Silva, P. H. A., & McGee, R. (1996). Personality traits are differentially linked to mental disorders: A multitrait-multidiagnosis study of an adolescent birth cohor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99-312.

- Letzring, T. D., Block, J., & Funder, D. C. (2005).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Generalization of self-report scales based on personality descriptions from acquaintances, clinicians and the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4), 395-422.
- Longshore, D., Chang, E., & Messina, N. (2005). Self-control and social bonds: A combined control perspective on juvenile offend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1*, 419-437.
- MacKenzie, D. L. (2002). Reducing the criminal activities of known offenders and delinquents: Crime prevention in the courts and corrections. In L. W. Sherman, D. P. Farrington, B. C. Welsh, & D. L. MacKenzie (Eds.),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pp. 330-404). New York: Routledge.
- McFalin, D. B., Baumeister, R. F., & Blascovich, J. (1984). On knowing when to quit: Task failure, self-esteem, advice, and non productive persis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38-155.
- Mitchell, O., & Mackenzie, D. L. (2006). The stability and resiliency of self-control in a sample of incarcerated offenders. *Crime and Delinquency, 52*, 432-449.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2), 247-259.
- Piquero, A. R., & Bouffard, J. A. (2007). Something old, something new: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Hirchi's redefined self-control. *Justice Quarterly, 24*(1), 1-27.
- Pratt, T. C., &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Rafaelli, M., Crockett, L. J., & Shen, Y. L. (2005). Developmental stability and change in self-regula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 54-75.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Ridenour, T. A., Greenberg, M. T., & Cook, E. T. (2006). Structure and validity of people in my life: A self-report measure of attachment in late child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6), 1037-1053.
-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eichel, B. J., & Baumeister, R. F. (2004). Self-regulatory strength. In R. F. Baumeister & K. D. Voh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115-130). New York: Guilford Press.
- Schmeichel, B. J., Vohs, K. D., & Baumeister, R. F. (2003). Intellectual performance and ego depletion: Role of the self in logical

- reasoning and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3-46.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78-986.
- Silverman, I.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 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73.
- Steinberg, L., Dahl, R., Keating, D., Kupfer, D. J., Masten, A. A., & Pine, D. S. (2006). The study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Integrating affective neuroscience with the study of context. In D. Cicchetti and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710-741). Hoboken, NJ: Wiley.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2.
- Trumpeter, N., Watson, P. J., & O'Leary, B. J. (2006). Factors withi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s: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narcissism, self-control, and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849-860.
- Turner, M. G., & Piquero, A. R. (2002).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457-471.
- Turner, M. G., Piquero, A. R., & Pratt, T. C. (2005). The school context as a source of self-contro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327-339.
- Unnever, J. D., Cullen, F. T., & Pratt, T. C. (2003). Parental management, ADHD, and delinquent involvement: Reassessing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ustice Quarterly*, *20*, 471-500.
- Vazsonyi, A. T., & Huang, L. (2010). Where self-control comes from: On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hip to deviance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46*(1), 245-257
- Winfrey, L. T., Jr., Taylor, T. J., He, N., & Esbensen, F. A. (2006). Self-control and variability over time: Multivariate results using a 5-year multisite panel of youths. *Crime & Delinquency*, *52*, 253-286.
- 

1차 원고 접수: 2010. 10. 12

수정 원고 접수: 2010. 11. 11

최종 게재 결정: 2010. 11. 12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Change of Self-Control in Early Adolescence: Its Relations to Parental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and Self-Esteem

Hwa Jin Cho      Ba Ole Choi      Young Seok Seo  
Department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authors examined whether and how children's self-control changed during early adolescence. They also investigated the extent to which this change was related to children's parental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and self-estee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was used to analyze 4-year longitudinal data (N = 2,844) originally collected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A significant decrease in self-control was observed from the ages of 9 to 11, and self-control started to get stabilized at age 11. Self-esteem was negatively predictive of self-control at age 10, whereas parental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were positively predictive of it. Also, self-esteem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rate of change in self-control, whereas parental attachment was negatively related to it. Finally, only parental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rate of acceleration in self-control. Study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self-control, parental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self-esteem, growth model*

